



5면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24일까지 한시적 지원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음 3월 24일) 제2518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민주 텃밭 압승... 이번은 없었다



김윤덕 (민주당)



이상직 (민주당)



김성주 (민주당)



신영대 (민주당)



김수홍 (민주당)



한병도 (민주당)



윤준병 (민주당)



이용호 (무소속)



이원택 (민주당)



안호영 (민주당)



전춘성 (민주당)

도내 21대 총선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서 특별한 이번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나타난 결과도 무소속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앞서왔다.
도내 10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를 민주당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총선 결과와 희비가 교차했다.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과열 혼탁선거를 보이면서 민주당에서 몇 석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 외에는 군소정당의 묶은 없었다.
4년 전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 일면서 민주당은 도내에서 참패를 했다.

정읍 고창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진안군수 재선

21대 총선 도내 국회의원 군수 당선자

10개 선거구 중 9개 싹쓸이... 무소속 이용호 생환
문 정부 정국주도권 확보...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
민생당 전멸 정동영 침울...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

한 양상을 보여줬다.
군산 선거구만 해도 현역인 김관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선거 결과는 신영대 후보로 결정됐다.
도내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이용호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무소속 이용호

후보에게 한 곳을 내줬다.
이용호 당선인이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여론이 었지만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은 꽃을 피웠다.
한편으로 민생당은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한 석도 차지 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정동영 후보의 패배와 지난해 녹색바람의 주역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 볼 수밖에 없게 됐다. /특별취재반

‘코로나 효과’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 ‘과반의석’

최종 투표율 66.2%... 28년만에 최고치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느 정당에서 승리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느 정당이 승리 하느냐에 따라 정국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과는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에 없었던 큰 변화도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정부 여당 승리의 원동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中國(중국)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방

역 및 확산방지를 포함한 치료율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더 높아졌고, 그 결과 유권자들의 참여율도 높아졌다.
지난 29대 총선 때 투표율 58%보다 높은 투표율은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지만,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 하게 됐다.
이러한 정부 대응은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
정부여당의 과반의석 차지는 향후 정국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정국주도권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브

브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6.2%를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투표율로는 최고치이며, 지난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28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난 29대 총선 때 투표율 58%보다 8.2%p(포인트) 높은 수치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4대(1992년) 71.9%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최종 집계에 따르면, 전국 4399만4247명 유권자 중 2912만804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1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26.69%) 가운데 관세 사전

투표 결과와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까지 합산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68.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세종 68.5%, 서울 68.1%, 전남 67.8%, 경남 67.8%, 부산 67.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인 서울 68.1%, 경기 65.0%, 인천 63.2%를 기록했다. 충남은 6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15만7000여명의 투표관리인력이 투입됐으며, 투표지분류기는 2070여대, 투표지심사계수기는 6610대가 사용됐다.
/특별취재반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상패/명패
실사현수막/각종깃발
팜플렛/리플렛/각종인쇄

핀촉사업부
기념품/핀촉용품
단체복/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2323@hanmail.net

www.mp2323.com